

國際農村開發協力論序說

王 仁 權*

〈目 次〉

- I. 머리말—問題의 所在
- II. 國際農村開發協力を 위한 基本含著
- III.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本質과 發展
- IV.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的 課題와 戰略
- V. 맺음말—發展的 課題

I. 머리말—問題의 所在

國際農村開發協力(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RDC)이라는 概念은 實體面에서 크게 變異되거나 逸脫됨은 없을 것이지만 이를 表章하는 用語에 있어서는 比較的 多樣함을 볼 수가 있다. 例컨데, 國際農業開發協力(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ADC), 國際農業開發援助(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ssistance, IADA), 國際農業技術協力(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IATC), 國際農業技術援助(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ical assistance, IATA) 등이 몇가지의 보기가 될 것이다.

相當程度의 論理的 選好에서 國際農村開發協力이라는 概念과 用語를 使用하는 畧인데 相對的으로 매우 豊富하게 國際農村開發協力を 受領하였으며 또한 여전히 追求하고 있는 우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近者에 이르러 顯在的으로 그리고 潛在的으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供與國으로 浮上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勿論 總體的인 國際開發協力(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의 틀에서 農村開發部門만을 抽出한 경우이다. 그런데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受領 또는 受領者의 地位와 供與 또는 供與者의 地位는 마치 銅貨의 表裏와 같이 密接하면서 또한 다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本稿는 筆者가 3個月間(1985년 4월~7월) 日本 中央大學의 客員研究員으로 있을 때 作成한 것으로, 齊藤優教授, 同經濟研究所, 그리고 文部省의 日本學術振興會에 깊은 感謝를 드린다.

바야흐로 加增되어 가고 있는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의 國際社會的 環境下에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供與國으로서의 우리의 實際的 經驗은 많지 않으며, 이에 關한 專門的 研究도 또한 적은 것이 現實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實際적으로 우리보다 뒤쳐져 있는 多數의 開發途上國을 主로 對象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國際農村開發協力일 것인데 本小稿가 뜻하는 바는 새로운 理論的 論考를 展開하려는 것은 아니며, 以上과 같은 틀의 分明한 認識下에서 國際農村開發協力論의 「序說」을 簡明하게 펴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國際農村開發協力的 本質的 性格, 歷史的 發展, 그리고 基本的 課題내지 戰略에 關하여 選擇的으로 살핌으로써 이 分野에 대한 理論的 및 實踐的인 關心과 發展的 情報를 가다듬게끔 發議하는데 本小稿의 基本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II. 國際農村開發協力を 위한 基本含蓄

本質적으로 볼 때 國際農村開發協力は 社會的 事象(social phenomenon)인데 이에 關한 基本的이며 本格的인 接近은 學際的 또는 多學問的으로만 어느 程度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源泉的 내지 根源的인 理解의 含蓄을 相當程度로 社會學的인 視角에서 導出할 수가 있을 것이다. 主要한 社會的 關係 및 過程으로서의 結合的인 關係 및 過程, 그중에서도 協同的 關係 및 過程이라기보다는 交換的 關係 및 過程의 簡明한 高찰을 通해서인 것이다.

1. 主要한 社會的 關係 및 過程

人間의 共同的 또는 集團的인 相互作用(interaction) 또는 社會的 相互作用(social interaction)은 社會過程(social process)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相互作用이 다만 行動이 雙方向的으로 行해지는 것을 強調하는 데 對하여 社會過程은 그것이 어떠한 種類의 行動인가를 強調하고 있는데, 例컨데, 비제(Wiese)⁽¹⁾는 (ㄱ) 結合過程, (ㄴ) 分離過程, 그리고 (ㄷ) 混合過程을 主要한 範疇로 論하고 있음을 본다. 相互作用하고 있는 當事者間의 모든 關係가 즉 社會關係(social relationship)가 되는데, 파슨즈(Parsons)⁽²⁾와 매한가지로 目標達成行動을 主로 하고, 表出的 行動을 副次的으로 보는 立場에서 安田⁽³⁾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社會過程의 關係를 簡明하게 表式化하여 提示하고 있다.

(1) Leopold von Wiese, *Allgemeine Soziologie*, Bd. 1., 1924.

(2)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Free Press, 1951; *Structure and Function in Modern Society*, Free Press, 1960.

(3) 安田三郎, “相互行爲・役割・コミュニケーション”, 安田三郎外編, 『基礎社會學(第Ⅱ卷 社會過程)』, 東洋經濟新報社, 1980, pp. 2-28(22).

〈表 1〉 여섯가지의 社會過程의 關係

A의 行動의 作用	B의 行動의 作用	促 進	阻 害	無 影 響
促	進	① 結 合	② 支 配	③ 援 助
阻	害	② 支 配	④ 抗 爭	⑤ 優 越
無 影 響		③ 援 助	⑤ 優 越	⑥ 並 存

註：“B의 行動의 作用”이란 “B의 行動이 相對方의 目的達成에 對한” 것을 뜻하며, “A의 行動의 作用”의 경우도 同一性格의 것을 가리킴.

結合은 交換이든 協力이든간에 相互의 相對方의 目標達成을 正方向으로 促進시키는 過程 또는 關係, 즉 結合過程(關係)이며, 抗爭은 競爭이든 鬭爭이든간에 相對方의 目標達成을 相互의 阻害함으로써 抗爭過程(關係)이 된다. 그리고 支配는 한 當事者의 行動은 相對方에 의하여 阻害되나 他當事者의 行動은 相對方에 의하여 促進되는 것으로서 支配關係에서 보는 바가 된다. 그리고 援助와 優越, 그리고 實質의 相互作用이 없는 並存은 副次的 社會過程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國際農村開發協力を 社會學的으로 볼 때에 가장 基本的으로 중요한 概念中의 하나는 結合의 關係 및 過程이며, 援助도 여기에 包括된다고 보겠다.

複數行動者의 各各의 動機 또는 目標가 達成되게끔 相互의 促進되는 社會關係 또는 社會過程이 結合關係 또는 結合過程이 되는데, 이는 크게 세가지로 範疇化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가) 交換關係 또는 交換過程, (나) 協同關係 또는 協同過程, 그리고 (다) 親和關係 또는 親和過程 등이다.

2. 社會的인 交換的 關係 및 過程

嚴格하게 社會學的인 次元에서의 交換理論에 立脚하는 것을 止揚하게 되는 前提인데, 交換의 原義는 「財의 交換」, 즉 「物財의 相互의 移轉」이 된다. 이를 擴大하여 社會行動, 集團, 그리고 社會構造 등을 統一的으로 解釋하려는 것이 社會學的인 이론바 交換理論(exchange theory)인 것이다.

交換關係 또는 交換過程에서 첫째로 考察되어야 하는 것은 「交換되는 財」의 分類이다. 吉田⁽⁴⁾에 의한 「資源二財」의 分類가 매우 意味가 있다고 보게 되는데, (가) 物的 資源(物財), (나) 情報的 資源(情報財), 즉 知的 資源, (다) 關係의 資源(關係財), 예컨대 權力, 地位 등, 그리고 (라) 人的資源 등인 것이다. 그런데 經濟的 交換과 區別되는 바 社會的 交換의 경우에 交換對象으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援助, 感謝, 賞贊, 會話, 接待, 愛情 등은

(4) 吉田民人, “社會體系의 一般變動理論,” 青井和夫外編, 『社會學講座 (I. 理論社會學)』, 東京大學出版會, 1974.

以上の 네가지 資源中의 어느 것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交換當事者로부터 分離될 수 없으며, 時限的으로만 存在하는 無形物의 交換을 앞서의 4種類의 交換財의 경우의 「財의 交換」과 區別하여 「行動交換」이라고 區別하고 있다.⁽⁵⁾

둘째는 儀禮的 交換과 充足的 交換을 살피게 된다. 諸人類學者들⁽⁶⁾의 交換理論에서 共通的인 것은 經濟的 交換과 贈物 또는 贈與 등의 交換과의 嚴格한 區別이다. 經濟的 交換에서는 (1) 雙方이 主觀的 效用的 增加를 目的으로 하여, (2) 事前的인 合意下에서, (3) 異種財가 交換되는데 대하여, 贈與 또는 贈物의 交換의 경우에는 以上の 그 어느것과도 無關하다. 그러나 儀禮的 交換과 充足的 交換의 區別은 分析的인 것이며, 現實的으로는 兩者가 여러가지의 比重으로 重複的으로 포함되고 있다.

셋째는 限定的 交換과 一般化的 交換인데 말리노우스키(Malinowski)⁽⁷⁾가 西太平洋諸島에서 研究 報告한 首飾 및 腕輪의 交換慣習은 有名한 바가 있다. 원래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⁸⁾에 依하여 概念化된 것이므로 그의 用語에 立脚하면서 단지 2者間의 互酬的 또는 互惠的 交換을 限定的 交換(restricted exchange)이라고 보고, 보다 巨視的으로 集合體속에서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그의 全構成員이 相互 互酬的 내지 互惠的으로 連結되어 있을 때 그 集合體에서는 一般化된 交換(generalized exchange)이 成立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네째는 互酬性 또는 互惠性과 非等價交換을 보기로 하는데, 굴드너(Gouldner)⁽⁹⁾ 같은 이는 交換의 互酬性은 人間社會의 普遍的인 規範이라고 보고 있다. 互酬性 또는 互惠性(reciprocity)은 大體的으로 等價的인 財가 雙方向으로 移轉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交換은 반드시 等價交換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廣義의 財를 考慮에 넣은 경우의 社會的 交換에서 等價交換인가 아닌가의 判別은 어렵다. 分明하게 非等價交換이라고 보게 되는 社會的 交換도 存在하는데, (1) 地位가 높은 者가 낮은 地位者에게 큰 反對給付를 하는 일, 그리고 (2) 逆으로 地位가 높은 者가 交換의 場에서 權力的으로 收奪하는 경우 등이다. 블로(Blau)⁽¹⁰⁾는 絶對的인 意味에서의 非等價交換은 提供이 적은 側이 提供이 많은 側에 服從케 되는 傾向을 現出시킨다고 본 바가 있다.

(5) 安田三郎, “結合關係と結合過程,” 安田三郎外編, 上掲書, pp. 29-48(32).

(6) 例컨데, 말리노우스키(Bronislaw Malinowski),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등이 代表的인.

(7)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Routledge & Kegan Paul, 1922.

(8) Claude Lévi-Strauss, *Les structures élémentaires de la parenté*, Morton, 1967.

(9) Alvin W. Gouldner,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960, pp. 161-179.

(10) Peter M. Blau,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John Wiley & Sons, 1964.

네제는 行動交換을 살펴보게 되는 데 이른바 「行動財」는 無形體이며, 그의 價値를 測定하는 것은 매우 困難하므로 어느 意味에서는 이 概念이 無制限의으로 擴大되어 모든 相互作用을 互酬的인 行動交換이라고 보게 될 危險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社會的 認定(social recognition) 또는 社會的 支持(social support)는 호먼스(Homans)⁽¹¹⁾의 交換理論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데 그가 例로 들고 있는 助言과 그에 대한 感謝는 當事者 雙方에게 있어서 動機充足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行動交換이라고 보아도 無妨할 듯하다. 그러나 助言은 원래 情報財를 주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感謝는 情報財를 無料로 提供하여 준 好意에 대한 反對給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好意와 感謝와의 行動交換과 情報財의 一方의 移轉이라는 順社會的 行動이 重疊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適切하지 않을까 한다. 好意의 交換, 會話의 交換은 充足的 交換일 것이며, 人事의 交換訪問의 交換은 儀禮的 交換인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順社會的 行動을 보기로 하는데, 交換을 意圖하여 베푼 行動이 結果로서는 交換이 되지 못하고 單方向的 또는 一方의인 財의 移轉이나 行動으로 되고 마는 일이 勿論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交換을 意圖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相對方으로부터의 互酬的인 行動을 豫想하지 않고 行해지는 社會的 行動이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社會的 行動에는 正, 즉 肯定的인 것과 負, 즉 否定的인 것의 두 가지 範疇가 있는데, 社會心理學에서는 正의 形式의 것, 예컨데, 同情, 愛他, 慈善, 援助 등의 行動은 順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 負의 形式의 것, 예컨데, 脅迫, 強奪, 暴行 등의 行動은 攻撃的 行動(aggressive behavior)라고 부르고 있다.⁽¹²⁾

바-탈(Bar-Tal)⁽¹³⁾ 같은 이는 順社會的 行動을 “自己目的的인 行動, 또는 報償的인 行動으로서 自發的으로 外的 報酬를 期待하지 않고 他者の 利益을 위하여 行하여지는 行動”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結局 報酬를 事前에 受取한 셈이므로 外的 報酬를 豫期하여 行하는 交換的 行動이 아닌 愛他的인 行動만을 順社會的 行動이라고 定義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交換理論의 支持者가 愛他的 行動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愛他的 行動 일지라도 內的인 報酬, 즉 自己滿足이 있기 때문에 交換이라고 看做

(11) George C. Homans, *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and World, 1950.

(12) 社會過程論의 觀點에서 보면 行動者 A의 順社會的 行動에 대하여 行動者 B가 反對給付를 하면 交換過程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援助過程을 생기게 한다. 行動者 A의 攻撃的 行動에 대하여 行動者 B가 똑같이 攻撃的 行動으로 나오면 抗爭過程이 나타나고 相對方을 無視해 버리면 優越過程이 나타난다. 順社會的 行動과 攻撃的 行動의 區別은 行動者 A의 動機에 의한 것인데 對하여 援助와 優越과의 區別은 行動者 B의 目標達成을 促進하느냐, 아니면 阻害하느냐에 依하게 된다.

(13) Daniel B. Bar-Tal,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Hemisphere, 1976.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基本含蓄의 追加: 「革新傳播論」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本質을 間接的으로, 그리고 極히 本源的으로 接近하는 한 試圖로서 主要한 社會關係(過程)인 結合關係(過程)중에서 相對的으로 가장 聯關的으로 意味있다고 判斷된 社會的 交換關係 내지 過程만을 抽出하여 簡明하게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 交換關係 내지 過程을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本質的인 社會學的 基礎로 過單純化的으로 看做한 셈이다. 그러나 비록 國際農村開發協力과의 直接的인 連結을 지니지 않은 吟味 記述이며, 또한 結合關係 내지 結合過程의 다른 두 가지 必須的인 下位關係 또는 過程, 즉 (ㄱ) 協同關係(過程)와 (ㄴ) 親和關係(過程)에 대하여 關心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の 밑바닥에 깊숙히 깔려 있는 基本的 또는 源泉的인 哲學的 또는 理論的인 含蓄이 어느 程度 浮刻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¹⁴⁾

그러나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的 내지 源泉的인 含意, 다시 말하면, 本質을 社會學的인 接近에 의하여 追求하려고 試圖한 以上, 極히 重要하다고 여겨지는 若干의 聯關的인 補充的 含意를 提示하게 되는데, 選擇的으로 가장 重要的 것은 「革新傳播論」⁽¹⁵⁾이다. 文化人類學的으로 볼 때 이른바 進化主義 또는 進化論(evolutionism)의 對理論으로서의 傳播主義 또는 傳播論(diffusionism)⁽¹⁶⁾에 根源的으로 立脚한 것일 것이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中核은 革新傳播(diffusion of innovations), 近者의 用語로서는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이 되는데 學際的 性格이 매우 짙은 이 分野의 中心分科가 바로 社會學인 것이다.⁽¹⁷⁾

그러므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實質은 農村開發技術移轉(rural development technology transfer)이 된다. 여기에서의 “技術”은 技術學的이며, 物理的인 것을 위주로 하나 非物質的인 것, 따라서 社會的 技術(social technology)도 包括되는 廣意의 것이다.⁽¹⁸⁾ 이른바 後發性利益(late development benefits)을 享受할 수가 있는 國家社會發展의 能力을 지닌 開發途上國, 다시 말하면, 外來技術 또는 輸入技術(imported technology)의 吸收能力(absorption

(14) 論者에 따라서는 筆者의 이와같은 接近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나 後續的인 記述과의 統合的인 視角에서 볼 때 이와 같은 努力이 決코 헛된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15) 다음을 參照할 것.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Third Edition), Free Press, 1984; Everett M. Rogers with F. Floy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A Cross-cultural Approach*, Free Press, 1971; 王仁權, 『現代의 農村社會學』(第11章 農村의 革新開發傳播), 博英社, 1983, pp. 477-551.

(16) 人類學 또는 文化人類學的의 文化理論家中에서 特히 보아(Franz Boas)는 文化는 獨立的으로 發生하고 發明되는 것이 아니라 傳播된 文化의 諸要因이 收斂, 統合, 複合되는 過程이라고 보고 있다.

(17) 例컨대 突戶는 開發戰略에 있어서의 技術移轉의 基本的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며, 아울러 技術移轉은 經濟學으로부터 社會學으로 進化的인 關心을 보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을 본다(突戶壽雄, 『援助大國日本の選擇—技術移轉は「人」の出会いから』, 東洋經濟新報社, 1981).

(18) John P. McInerney, *The Technology of Rural Development*, World Bank, 1978.

capacity)을 適正하게 지나고 있는 경우는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實質인 國際農村開發技術의 移轉은 相對的으로 크게 效率的이 될 수가 있다. (19)

지나치게 單純化하는 것이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は 先進的인 農村開發技術의 移轉을 實質로 하는데 이와같은 農村開發技術移轉을 위하여 農村開發技術의 研究開發(rural development technology R & D)이 必要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技術移轉論은 技術의 研究開發까지도 對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0) 國際化過程이 심화되고 있는 昨今, 經濟的 摩擦, 文化的 摩擦 등의 이른바 國際摩擦(international frictions, cross-cultural frictions)은 支配的으로는 貿易的인 收支不均衡에서 오는 것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技術移轉에 뒤따르는 것이며, 또한 바로 이의 逆機能(dysfunction)이 되는 것이다. (21) 따라서 國際農村開發協力에서 마땅히 關心을 두어야 할 바는 이의 實質을 形成하는 國際農村開發技術移轉을 學際的으로 分析研究하는 相對的으로 낮익지 않은 社會學的 分科가 된다. 이 名稱은 예컨대, 農業普及學, 農村普及學, 農業技術革新論, 農業技術移轉論, 農村技術移轉論, 農村技術革新論, 農村開發技術論, 農村開發革新論, 農村開發協力論, 그리고 以上の 모든 것에 國際라는 接頭辭를 붙힐 수도 있을 것이며, 가령 國際農業論을 使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III.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本質과 發展

國際農村開發協力は 歷史的으로 볼때 특히 1945년의 第2次世界大戰의 終結과 함께 두드러지게 浮刻된 國際開發援助의 틀안에서의 것이며, 그의 實質은 舊植民地宗主國으로서의 先進國(developed countries, DCs)에 의하여 新生的인 開發途上國(developing countries; less-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際農村開發協力 또는 援助는 總體的인 國際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한 下位構成部門에 지나지 않는다.

(19) 다음을 參考할 것. 海野福壽編, 『技術의 社會史』(第3卷)(西歐技術의 移入と明治社會), 有斐閣, 1982; 朴宇熙·森谷正規, 『技術吸收의 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82;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bsorption and Diffusion of Imported Technology*, 1981.

(20) John L. Woods, *Planned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Working Paper), UNDP-DSCS, Bangkok, 1977; Louis Malassis, *The Rural World—Education and Development*, UNESCO Press, 1976, pp. 61-74; Vernon W. Ruttan, *Agricultural Research Poli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21) 특히 技術移轉과의 聯關에서 文化的인 國際摩擦의 經驗的 研究에 關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川野重任編, 『技術移轉と文化摩擦』, 大明堂, 1982.

(22) 日本에서는 「普及學」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東京大學 등의 社會學科 또는 社會心理學科 몇 곳에 講座가 開設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의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에서의 「農業技術革新論」의 講座設置보다 10餘年이나 뒤늦은 것이 된다.

여기에서 當然히 國際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歷史的 展開를 簡明하게나마 살피는 것이 先行的으로 必要하게 되는 터이다.

1. 國際開發協力(援助)의 歷史的 展開

國際開發協力이라기 보다는 國際經濟協力 또는 國際開發援助라는 用語가 使用되어 오고 있는 것이 事實일 것인데 물론 前者의 用語가 發展的 含意의 것이며, 이들은 交互的으로 使用되어도 無妨할 것이다. 國際開發援助의 發議와 展開를 (ㄱ) 發展段階, (ㄴ) 政策的 變動, (ㄷ) 企劃 및 執行의 經路, (ㄹ) 成果, (ㅁ) 背景理論, 그리고 (ㅇ) 理念 및 目的 등에 걸쳐서 極히 簡明하게 살피보게 되는 터이다.⁽²³⁾

첫째는 國際開發援助의 發展段階를 壓切化하는 것인데 勿論 1945년의 第2次世界大戰의 終結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즉 (ㄱ) 東西冷戰狀況下, 다시 말하면, 美蘇間의 深刻한 「東西問題」(East-West Problems)⁽²⁴⁾의 場에서 援助供與面에서 크게 競爭性을 露呈시킨 1950年代, (ㄴ) 平和의 共存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의 反射的 增大와 이른바 「南北問題」(North-South Issues)⁽²⁵⁾의 浮刻으로 特徵지워질 수 있는 1960年代, (ㄷ) 多極化된 國際政治經濟狀況에 의하여 混亂과 困難이 加増化된 1970年代, 그리고 (ㄹ) 世界的 不況, 인플레이션, 經濟摩擦, 그리고 南北問題의 銳角化 등의 衝擊을 보고 있는 1980年代 등으로 國際開發援助의 發展段階를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國際開發援助政策面의 變化인데, 지나친 單純化의 危險을 무릅쓴다면, 時系列的으로, (ㄱ) 援助資金으로 輸入代替를 피함으로써 工業化를 이룩하여 成長率을 提高시키는 政策期→(ㄴ) 民間企業部門, 農業開發, 輸出産業, 그리고 雇傭增大 등의 促進에 優先을 둔 時期→(ㄷ) 開發途上國의 絶對的 貧困의 解消와 所得不平等的 緩和, 그리고 農業開發에 力點을 둔 오늘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國際開發援助의 企劃과 執行의 經路를 보기로 하는데, 單刀直入的으로 말하여 歷史的인 國際開發援助의 政策的 變動에 照應하여 이의 企劃과 執行의 經路도 變動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供與國과 受領國間의 二國間 開發協力形態가 가장 比重이 큰 데, 이 경우 政府次元的인 것과 民間次元的인 것, 그리고 無償的인 것과 有償的인 것이 區別될 수 있으며, 또한 多國의 機構와 國際機關을 통한 것도 있게 된다. 國際開發援助 또는 國際經濟協력을 위한 資金의 主要源泉은 (ㄱ) 開發援助委員會(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3) 國際經濟研究院, 『戰後國際經濟 30年史(3) 經濟協力』, pp. 17-90.

(24) 美國을 代表로 하는 民主主義國家集團과 蘇聯을 代表로 하는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國家集團과의 理念對立的인 諸問題를 가리킴.

(25) 地球의 北半球에 集中되어 있는 先進國과 主로 赤道付近에서 南半球에 걸쳐 位置하고 있는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的 隔差와 이로 말미암아 發生되는 모든 問題를 가리킴.

DAC)의 加盟國, (ㄴ) 石油輸出國機構(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加盟國, 그리고 (ㄷ) 社會主義國 등으로 되어 있다.⁽²⁶⁾ 다른 한편에 있어서 世界銀行(World Bank Group)과 다른 國際的 金融機關이 開發借款을 供與하고 있는데 이의 技術的 效率性을 提高 保障하기 위하여 國際聯合機構와 連繫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ㄱ) 技術協力專問機構인 國際聯合開發計劃(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ㄴ) 工業化 促進을 위한 國際聯合工業開發機構(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ㄷ) 農村開發을 위한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그리고 (ㄹ) 家族計劃을 위한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등이 보기가 된다.

넷째는 國際開發協力の 成果가 되는데 (ㄱ) 開發援助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經濟的으로 그의 量이나 質에 있어서 發展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促進的 役割을 하고 있으며, (ㄴ) 보다 뒤쳐진 開發途上國에 대한 協力資金의 配分이 增大되어 오고 있으며 (ㄷ) 協力資金의 供與는 現實的으로 供與國의 政策上의 優先的 考慮에 의하여 影響받고 있으며, (ㄹ) 多國的인 援助供與의 比重이 減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開發援助의 基本目的은 受領國으로서의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變換을 期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1960年 以來 現在의 第3次에 이르기까지 「國際聯合開發10年」(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UNDD)이라는 目標指向的인 開發計劃을 立案하여 오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目標 또는 計劃의 達成에는 차질을 보고 있으나 受領國間에 成就的인 變異가 認知되고 있다.⁽²⁷⁾ 開發途上國의 外債(foreign debts)의 解消는 커녕 加增的으로 累積되고 있는 現實이다.⁽²⁸⁾

다섯째는 國際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理論을 보기로 하는데, (ㄱ) 1950年代初에는 正統的인 經濟開發의 接近을 開發途上國의 諸條件을 考慮에 넣어 適用하려는 諸理論⁽²⁹⁾이 受容되

(26) DAC加盟國인 美國이 傳統的으로 가장 큰 寄與를 하고 있으며, OPEC加盟國들의 경우는 最近의 石油價의 下落으로 그의 資金寄與比重은 크게 낮아지게 마련일 것이다.

(27) 開發途上國間의 開發成果의 變異에 立脚하여 비록 少數이지만 “開發된 開發途上國,” “中進國,” “中所得國,” “新興工業國,” “先發的 開發途上國”으로 浮上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의 先頭走者格이다. 예컨대 다음을 볼 것. 渡邊利夫, 『成長のアジア 停滯のアジア』, 東洋經濟新報社 1985.

(28) 특히 先發的 開發途上國(中南美 및 東아세아諸國)을 보건데 特定國에의 債務集中度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8年間に 3~7배나 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1984年末 現在 開發途上國의 債務累積額(短期分 除外)은 7,148億달러로 集計되고 있다.

(29) W. Arthur Lewis, R. Nurkse, R.R. Nelson, 그리고 W.W. Rostow 등에 의하여 代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balanced growth theory,” “critical minimum effort strategy,” “surplus labor absorption strategy,” 그리고 “take-off strategy” 등이다.

있으며, (ㄴ) 195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앞서의 「正統派」(Orthodox School)를 批判하는 「非正統派」(Unorthodox School)의 諸理論⁽³⁰⁾이 登場하였으며, (ㄷ) 1960年代에는 正統派와 非正統派의 理論的 對立이 銳角化되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正統的인 經濟的 接近이 國際開發援助의 企劃과 執行에 適用되었었다.⁽³¹⁾ 나아가서, (ㄹ) 1960年代의 國際開發成果의 低調相은 1970年代에 이르러 1960年代의 開發理論을 深刻하게 反省, 評價함으로써 오늘날 이른바 「新事實主義」(New Realism)가 대두케 되어 國際開發援助政策에 關하여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이 함께 合意에 到達되게끔 一聯의 努力이 배풀어지고 있다.⁽³²⁾

마지막 여섯째로 훑어 보게 되는 바는 國際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理念, 動機 또는 目的이 된다. 이를 간추린다면, (ㄱ) 個別國家의 經濟的 利益을 促進 保護하는 國家經濟利益教義(Doctrine of National Economic Interests)⁽³³⁾, (ㄴ) 國家安全保障教義(National Security Doctrine), 즉 國際的인 政治的 및 外交的(따라서 軍事的으로도) 目的의 手段으로서의 國際開發援助⁽³⁴⁾, (ㄷ) 國際聯合教義(United Nations Doctrine), 또는 人道主義教義(Humanistic Doctrine), 그리고 (ㄹ) 最近에 浮刻된 國際協力教義(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rine) 또는 國際相互依存教義(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Doctrine)⁽³⁵⁾으로 範疇化되는데, 많은 경우 複合的인 理念, 動機 또는 目的이 간직되어 있으며, 특히 (ㄱ)과 (ㄴ)이 깊숙히 込사리고 있다고 보겠다.⁽³⁶⁾

2. 國際農村開發協力(援助)의 必要와 展開

(1)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必要

이미 間接的 性格의 基本的 含蓄을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本質의 導入과의 聯關에서 社會學的 觀點에서 論하는 자리에서 補完的으로 「革新傳播論」의 重要性을 指摘한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主題가 되는 國際農村開發의 實質 또는 現象形態를 크게 덧붙임없이 浮刻시킨 셈이다. 그런데 國際農村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必要와 發展을 살피기

(30) G. Myrdal, H. Mint, 그리고 A.O. Hirshman 등에 의하여 代表된 것임.

(31) 直接的인 參與의 寄與者는 H.B. Chenery and A.M. Strout, D. Avarmovic, 그리고 J.C.H. Fei and D.S. Paauw 등이다.

(32) 國際經濟研究院, 前掲書.

(33) 이른바 “tied assistance”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34) 美國이 특히 強力하게 이 教義를 實踐하여 왔는데 東西關係에서 보는 것이다.

(35) 南北間의 相互依存性의 不可避性과 必要性의 認識에서의 것인바, 여기에서 「援助」보다는 「協力」이라는 用語가 選好케 되었으며 이를 集約的으로 表章하는 것이 이른바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確立이다.

(36) 그러나 北北間經濟摩擦, 그리고 南北間問題가 深化되어 이들은 오늘날 退色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특히 日本의 경우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를 크게 擴大하게끔 되어 있다(各年刊의 通商産業省에 의한 『經濟協力の現狀と問題點』이 有用情報源임).

에 앞서 한 두가지의 聯關的인 概念을 問明하게 明確化할 先行的 必要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于先 農業開發(agricultural development, AD)과 農村開發(rural development, RD)을 보게 되는데, 農村開發은 支配的으로 產業的인 農業을 對象으로 하는 農業開發의 上位概念이다. 다시 말하면 農業開發은 農產業을 中核으로 하되 保健, 教育, 福祉, 環境 등 農村地域人的 全方位的인 生活의 質의 開發 提高를 目的으로 하는 農村開發의 下位概念인 것이다.⁽³⁷⁾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뒤쳐짐이 相對的으로 크면 클수록 農村開發보다는 食糧生産의 인 農業開發이 當面的으로 重要하게 되게 마련이다.⁽³⁸⁾

總體的인 國際的 次元에서 어느 類의 發展의 指標를 中心으로 하여 모든 國家를 몇가지로 範疇化하여 오고 있는데⁽³⁹⁾ 가장 傳統的이자 가장 單純하게 여겨지는 接近이 바로 (Γ) 先進國과 (L) 開發途上國으로 二分化하는 것이다. 그런데 發展途上國이라고도 옮겨 쓰고 있는 開發途上國만을 살펴 볼 때 1945年 以來 40年을 經過하는 사이에 少數이지만 몇몇은 餘他的 多數인 開發途上國보다 크게 앞서 있음을 보고 있다. 여기에서 總體的인 開發途上國을 (Γ) 先發的 開發途上國(firstcomer developing countries, FCDCs)과 (L) 後發的 開發途上國(latecomer developing countries, LCDCs)으로 다시 나누어 보고 있는데⁽⁴⁰⁾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受領者의 對象은 바로 (L)이 支配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⁴¹⁾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必要는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總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로, 後發的 開發途上國은 支配的으로 農業基盤的인데 이와같이 農業의 發展이 극히 뒤쳐져 있는바 食糧生産의 不足으로 飢餓까지 보고 있는 事例가 적지 않다는 事實⁽⁴²⁾, 둘째로, 一般的으로 農業開發이 工業化的 國家發展의 前提條件이라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인데⁽⁴³⁾ 많은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경우 「農業開發(農村開發)=總體的 國家發展」의 定式이 成立되고 있는 國家發展水準에 멈춰 있다는 點, 그리고 셋째는, 거의 全部의 後發的 開發途上國은

(37) Frithjof Kühnen, "The Concept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農業經濟研究』, 第19輯, 1977, pp.137-146.

(39) 다음을 參照할 것. 王仁權, "아프리카의 農村開發戰略," 韓國外國語大學校 아프리카問題研究所, 『아프리카 綜合研究論叢』, 1983, pp.159-195.

(40) 例컨데 해마다 補完的 修正을 보이던서 世界銀行이 全世界國을 分類하여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兩分的 範疇化는 1982年度의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모든 開發途上國을 (Γ) low-income의 것과 (L) middle-income의 것으로 나눈 것과 聯關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이와같은 分類는 總體的인 國家社會發展水準에 立脚하는 性格의 것이다.

(41) 여기서도 특히 아프리카에 集中되다시피 되어 있는 「最低開發國」(LLDCs)이 中核이 될 것이나 말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42) 沈永根·王仁權, "아프리카 食糧危機의 統合的 視角," 『農學研究』, 第9卷 第2號, 1984, pp.95-103. 逸見謙三, "아프리카의 食糧危機," 『國際協力研究』, 제1권 제1호, pp.4-12.

(43) 王仁權,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과 農業技術革新," 『農學研究』, 第5卷 第2號, 1980, pp.65-79.

先進國에 의한 植民地化的인 先行條件을 지니고 있으며, 獨立에서 비로소 本格的으로 發議되는 國家建設(nation-building)의 歷史가 극히 日淺하다는 것 등이 우선 一般的으로 指摘된다. 이어서 넷째로는, 內生的 發展 또는 自體的 發展(endogenous development)의 限界性이 너무나도 크므로 外部에 의한 發展의 促進이 必要不可避하다는 事實이다.⁽⁴⁴⁾

다시 나아가 다섯째로 國際農村開發協력이 必要한 것으로 知覺되는 바는 이미 본바 있는 國際開發協力の 理念, 動機, 目的이 그대로 適用되는 것인데, 특히 人道主義的인 面이 크게 浮刻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傳統的으로 「南北問題」의 밑바닥에 가로 놓여 있다고 보게 되는데, 이것이 國際聯合敎義 또는 人道主義敎義로서 이미 言及한 바가 있다.

여기서 強調하게 되는 것은, 人類愛, 博愛, 平等主義 등의 심오한 것에 基本的으로 立脚한 것이지만, 이의 發議的인 現象形態는 基本必要充足的인 諸資源의 割愛的 配分이며, 더욱이나 이것은 充分히 可能하다는 事實이다.⁽⁴⁵⁾ 마지막 여섯째의 必要는 統合的인 性格의 것으로서 앞서의 다섯째의 必要와 聯關되는 것이지만 世界的인 平和的 秩序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하여 必要不可避하다고 보게 된다. 이미 본 바 있는 「南北問題」나 「東西問題」는 이른바 「南南關係」(South-South relations) 또는 「南南協力」(South-South Cooperation)⁽⁴⁶⁾에 의하여 특히 補強되게 마련일 것이다.

要컨데 아직 世界政府는 없는 것이지만 個別的인 國家社會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必要(Needs, N)에 따라서 資源(resources, R)을 適正하게 配分함으로써 發展을 企劃하여 最大多數人의 生活의 質을 具現 提高시키는 것을 國際的으로 外延化하는 한 專門的 接近이 곧 國際農村開發協력이 된다고 보게 된다. 일찌기 루이스(Lewis)⁽⁴⁷⁾는 매우 素朴하게 그러나 深大한 含蓄을 지니고, “專門家가 볼 때 가장 效果的인 것으로 여겨지는 問題解決的인 行動과 大多數者가 실제로 行하고 있는 바 사이에는 恒常 間隔(gap)이 있게 마련으로, 結局 知識이 成長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充分하지가 못하며, 知識은 實際面에서 適用되어야만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는 곧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主對象으로 하는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必要를 劇的으로 含蓄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가 있을 것이다. 知識開發(knowledge development) 또는 技術開發과 知識活用(knowledge utilization) 또는 技術活用

(44) 近代의 開發理論은 自體的 또는 內生的 發展의 局限性和 또한 궁극적인 이의 促進을 위하여 外部的 諸資源의 衝擊이 必要不可避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開發途上國의 開發과의 聯關에서 이다.

(45) 劇的인 보기는 예컨대 1985年의 美國의 巨大한 剩餘食糧과 아프리카의 深刻한 飢餓가 될 것인.

(46) 이의 國際的인 制度化된 보기는 「開發途上國間 經濟協力」(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ECDC), 「開發途上國間 技術協力」(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 「77個國集團」(Group 77: G77) 등이 될 것이다.

(47) W. Arthur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Richard D. Irwin, 1954, p. 177.

과의 關聯에서인 것이다.

(2)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展開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國際開發 또는 國際開發協力の 한 部門이 國際農村開發 또는 國際農村開發協력이 되는데 1945년에 第2次世界大戰이 終結됨과 同時에 展開된 混亂과 復舊의 時期에 美國의 剩餘農産物이 「公法 480」(Public Law 480)⁽⁴⁸⁾하에 援助條로 供給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國際農村開發協力 또는 援助와 重大한 關係를 지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美國剩餘農産物의 國際開發援助的인 供與는 매우 挑戰的인 問題와 評價를 지니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것이 (ㄱ) 國際農村開發協力 또는 援助의 本格的인 發議라는 것, (ㄴ) 肯定的 또는 寄與的인 면과 否定的 또는 逆機能的인 結果를 現出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ㄷ) 現狀維持의 내지 直時的 必要充足의 것이지 開發的인 것에서 距離가 멀다는 것 등만을 指摘하는 데 멈추기로 한다.

그런데 國際開發協力 또는 國際農村開發協력과 같은 어느 程度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되었으며, 따라 規模的인 것을 留保시킬 때 農業技術의 國際的인 傳播 또는 移轉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극히 古典的인 研究事例지만 사우어(Sauer)⁽⁴⁹⁾와 바빌로프(Vavilov)⁽⁵⁰⁾에 의한 個別的인 研究에 의하면 先史時代에 있어서도 改良農耕法과 作物 및 家畜品種이 國家間, 그리고 大陸間에 傳播되어 生産性成長(productivity growth)의 한 主要한 源泉으로 되었었다고 究明되어 있다. 이와 같은 國際的인 自然的 傳播(natural diffusion)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企劃的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小規模的, 偶發的, 低水準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國際農村開發協力 또는 援助는 이것과는 完全히 區別되는 性格의 것이다.

이미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必要를 記述한 바 있지만 기왕의 一般化的인 것에서 보다 具體的이며 技術的인 것으로 바꿔본다면, 開發途上國,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경우, (ㄱ) 農業 또는 農村開發技術의 研究開發(R&D)의 能力과 水準이 極히 낮으며, 또한 (ㄴ) 技術活用(technology utilization), 다시 말하면 可用的인 農業技術 또는 農村開發技術의 實際的인 適用 내지 活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으로 農業 내지 農村의 開發을 위한 두가지 範疇의 必須的 要請이 다 問題的인 것이다. 여기에서 農業開發 또는 農村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이 두 가지 範疇의 技術을 先進的인 外國으로부터 輸入移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름 아

(48) 美國의 食糧援助는 1954年の 本公法, 즉 「農業貿易開發援助法」에 의하여 始作하여 1967年 以後에는 1966年の 食糧法에 의하여 行해지고 있는 것임.

(49) Carl O. Sauer,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and Food-stuffs*, MIT Press, 1969, pp.113-134.

(50) N.I. Vavilov, "The Origin, Variation, Immunity, and Breeding of Cultivated Plants," in *Chronica Botanica*, Vol. 13, Nos 1-6 (1949~1950).

닌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實質인 것이다.⁽⁵¹⁾

하야미와 루탄(Hayami and Ruttan)⁽⁵²⁾이 國際農業技術移轉의 세가지 局面을 區別한 바 있는데 이는 國際農村開發協力の 質과 發展의 觀點에서 매우 重要的 意義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發展段階인 것인데 첫째의 局面은 「物質移轉」 또는 「實物移轉」(material transfer)으로서, 技術學的 範疇의 보기에 局限한다면, 種子, 作物, 家畜, 農機械 그리고 聯關의 技術의 單純한 移轉 또는 輸出入을 두고 말한다. 이 경우에 地域的 適應(local adaptation)은 本格的으로 行해지지 않으며, 受領農民에 의한 試行錯誤의 結果로서 自然移植 또는 土着化(naturalization)가 이뤄진다. 다음의 段階인 「디자인移轉」(design transfer)에서는 農業技術의 移轉은 어느 디자인, 다시 말하면, 設計書, 處方, 靑寫眞, 公式, 書籍 등에 의하여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適應的 試驗이나 試作 또는 模倣이 이루어지게 되며 公共的인 農業研究가 比較的 單純한 水準에서 發議케 된다. 마지막 셋째의 「能力移轉」(capacity transfer)의 경우는 科學的인 知識과 能力, 즉 소프트財(soft goods)의 移轉에 依한 段階의 것으로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窮極的인 目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으로, 그리고 支配的으로 先進國源泉의 國際農村開發協力は 「實物移轉」을 中心으로 하여 배풀어져 왔는데 이는 當장의 食糧不足 등의 事態까지도 보는 事例가 적지 않은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技術의 活用을 위한 創出, 吸收, 그리고 適應의 能力缺如⁽⁵³⁾와 또한 協力供與國으로서의 先進國이 研究開發의 面에서 農村開發協力を 베푸는데 있어서 政策的 配慮를 發議的으로나마 適正하게 하지 않았던 것⁽⁵⁴⁾에 起因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多國의 이라기 보다는 支配的으로 二國間의 것이 主가 되는 바이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展開에 있어서 必然不可避的으로 研究開發의 性格의 面이 浮刻되게끔 되고 있다. 國際農村開發協力の 또 다른 本質인 “地域特化的”(location-specific)——技術學的인 同時에 社會文化的 및 社會經濟的인——인 데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研究開發의 指向의 國際農村開發協력이 本格的으로 發議를 보아 이른바 綠色革命(green revolution)⁽⁵⁵⁾을 낳고 있는 데 거의 決定的인 役割을 하여오고 있는 것이 바로

(51) 따라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實質은 이에 照應하여 (1) 技術可用性의 確立과 (2) 可用的 技術의 實地適用의 促進의 두가지 必要條件의 要請을 지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52) Yujiro Hayami and Vernon 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pp. 174-176.

(53) 이는 農村開發技術의 側面에서 開發途上國, 특히 後發의 開發途上國을 特徵지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54) 예컨대 T.W. Schultz는 農業研究와 農業技術面에서 投資에 充分한 力點을 두지 않았다고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援助計劃을 批判한 바 있다. 그러나 農科大學과의 連繫에서의 “Institution-Building” 接近이 없는 것은 아니다.

(55) 예컨대 다음을 參照할 것. Lester R. Brown, *Seeds of Change—The Green Revolution and De-*

全世界의 數個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設置 運營되고 있는 地域的인 國際農村開發研究 센터이다. 元來는 美國의 民間財團에 의하여 發議된 것인데 우리와 극히 密接한 協力關係를 지니 오고 있는 米作圈을 對象으로 한 필리핀의 國際米作研究所(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는 이의 두드러진 보기이다.⁽⁵⁶⁾ 要컨데 이와 같은 地域的인 國際的 農村開發研究센터는 기왕에 國際農村開發協力에 있어서의 關心을 거의 두지 않았던 研究開發(R&D)의 必要의 充足을 特定廣域地域의 主穀의 作物을 照準하여 베푸는 目的의 것인데, 先進國源泉의 農村開發技術移轉의 基本問題點을 準直接移轉的 또는 準適正技術移轉的인 方向의 것으로 解決하려는 데 主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相對的으로 보다 地域特化的으로 適正的인 適應化的인 主幹技術의 研究開發과 移轉, 그리고 보다 擴大된 開發途上國 專問家의 人的 訓練에 임하고 있다.

이미 舍意된 바 있을 것이지만, 國際聯合의 關係專問機構인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를 中核으로 한 國際聯合 諸機構의 努力은 두드러지게 잘 알려지고 있거니와, 이것과 地域的인 國際的 研究센터, 그리고 個別的인 國家의 次元에서의 國際農村開發을 위한 協력이 세가지의 主要한 範疇의 國際農村開發協力の 源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다른 準國際的인 地域的 機構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의 한 보기는 방글라데쉬의 다카에 本部를 두고 東南亞의 11個國이 加盟하고 있는 亞細亞 및 太平洋地域 統合農村開發센터(Center 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 CIRDAP)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一般的인 國際開發協力에서도 본 바 있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の 경우에도 二國間協力の 形態가 相對的으로 가장 重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先進國源泉的인 것이다.

그러나 先進國源泉的인 二國間的 國際農村開發協力에는 여러가지의 問題點이 오늘날에도 認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適正技術的인 視角에서 오는 問題點이 가장 基本이 될 것이나 기실은 이에만 멈추는 것은 아니다.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경우 協力供與國인 先進國과의 사이에 너무나도 큰 發展的 差異가 있음으로 協力的인 哲學이나 接近面, 즉 協力行態面에서 適正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先發的 開發途上國을 보건데, 최근에 一般의 水準의 先進國源泉의 國際農村開發協力, 다시 말하면, 先進國源泉의 國際農村開發技術移轉을 상당정도로 成功的으로 受領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後發的 開發途上國 一般과 같은 것은 물론 아닐지라도 相對的으로 크게 낮은 水準에서 試行錯誤的인 吸收過程을 經過하여 成功的인 農村開發을 상당정도로 이룩한 셈이다. 따라서

velopment in the 1970s, Praeger Publishers, 1970; Andrew Pearse, *Seeds of Plenty, Seeds of Want—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Green Revolution*, Claredon Press, 1980.

(56) 王仁權, 『現代의 農村社會學』, pp. 508-511.

先進國→開發途上國(先發的 및 後發的)이라는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定式은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主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對象이라고 보게 되는 오늘 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의 定式으로 代替되는 추세가 어느 程度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強化될 것으로 期待된다.⁽⁵⁷⁾

IV.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的 課題와 戰略

基本的으로 말하여 戰略(strategy)이란 로저스(Rogers)⁽⁵⁸⁾가 概念化하여 示唆한 바와 같이 어느 企劃의 變動과의 聯關에서 (ㄱ) 基本的 또는 本質的인 理論, (ㄴ) 聯關的인 應用的 내지 分科的인 理論, 그리고 (ㄷ) 實際的인 經驗的 知識 등에 立脚하여 導出된 一般化(generalizations)를 特殊個別的인 狀況 또는 事例에 適用하는 데 使用되는 實踐指向的 또는 行動指向的(action-oriented)인 한날의 統合的인 知識體인 것이다. 비록 극히 制限的으로나마 國際農村開發協力에 關한 一般化를 卽할 수는 있을 것이나 本稿의 制限的인 性格上 이 는 다음 機會에 미루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序說的으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一般化的 戰略(generalized strategies), 一般的 戰略(general strategies), 또는 基本的 戰略(basic strategies)은 提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的 戰略은 相當程度로 그의 基本的 課題와 비슷한 性狀을 지니는 셈일 것인데, 여기서는 必須的이라고 느껴지는 바 必要 또는 要請, 즉 課題와 戰略의 事項에 關하여 論理的인 脈絡을 깊이 따지지 않는 順序로서 簡明하게 記述하기로 한다. 勿論 南北關係的인 것이 爲主가 될 것이지만 南南關係的인 것에도 크나큰 關心을 돌이며, 또한 어느 程度 制限的인 것이지만 東西關係的인 것에도 눈을 가리우지는 않을 것이 것며,⁽⁵⁹⁾ 國際農村開發協力이 基本的으로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認識에 立脚하는 것이다.

(57) In Keun Wang,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from Firstcomer to Latecomer Developing Countries: An Introductory Note," *Korea Observer*, Vol. 15 No. 2, 1984, pp. 101-124.

(58) Everett M. Roger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Family Planning*, Free Press, 1973, pp. 28-33.

(59) 本稿에서의 國際農村開發協力の 論議는 明示的으로 北北間 또는 東西關係的인 것을 記述하지는 않았으나 예컨대 美國과 蘇聯은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中斷되었던 「美蘇合同農業協力委員會」를 1985年 6월에 再開시켜, (ㄱ) 農業經濟分野에서의 研究와 情報交換, (ㄴ) 實際的인 農業研究와 技術協力, 그리고 (ㄷ) 젊은 農業專門家 및 農業從事者의 交換 등의 면에서 農業部門에서의 協力擴大를 꾀하고 있다.

1. 開發協力の 基本理念, 目的 그리고 必要

(1) 基本理念的인 戰略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理念的인 戰略이라는 表現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國際農村開發協力を 切實히 必要로 하는 多數의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後發의 開發途上國의 生存 및 成長充足的 開發, 즉 支配的으로 農村開發을 積極的으로 促進시키지 않으면 이른바 南北關係는 人道主義의 視角에서도 그렇지만 世界의 平和와 秩序를 根本的으로 崩壞시키게 될 可能性이 적지 않다. 齊藤⁽⁶⁰⁾가 南北問題를 “開發과 平和의 政治經濟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適切한 바가 있다고 보겠으며, 또한 西川⁽⁶¹⁾가 南北問題는 世界經濟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하나의 世界”의 問題가 出現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意味가 있다고 보겠다. 다시 나아가 篠原 等⁽⁶²⁾은 國際協力は “第3世界의 成長과 安定”에 그의 本質이 있다고 表章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國際農村開發協力の 基本理念的인 戰略은 특히 南北間의 相互依存의 내지 共生的 狀況을 直視하여야 마땅하다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특히 주된 協力供與國의인 先進國이 相對的으로 莫重한 責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2) 開發目的的 및 協力目的的인 戰略

國際農村開發協力の 窮極的인 目的은 農村開發을 促進시킴으로써 이른바 生存欲求充足——이것이 이른바 「基本人間必要戰略」(Basic Human Needs Strategy, BHN Strategy)⁽⁶³⁾일 것인데——을 適正하게 保障하는 데서 出發하여 이를 成就 또는 土臺로 하여 開發途上國을 發展成長시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開發目的的 및 協力目的的인 戰略에 있어서 예컨대 當장의 飢餓의 解消를 위하여 食糧 등의 이른바 「實物移轉」을 內容으로 하는 協力を 度外視하는 것은 결코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開發途上國의 自體的인 成長과 安定의 效率的인 促進을 위한 한낱의 手段의 또는 道具的인 것이라는 事實을 眞實되게 認識 實踐하면서 農村開發協力を 推進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다 次元을 낮추어 볼 때 餘他的 있을 수 있는 協力供與側의 個別的 또는 集團的인 協力的 目的은 全的으로 副次的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여 이의 全的인 排除는 아마도 可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

(60) 齊藤優 編, 『南北問題—開發と平和の政治經濟學』, 有斐閣, 1983.

(61) 西川潤, 『南北問題—世界經濟を動かすもの』, 日本放送協會, 1984.

(62) 篠原三代平編, 『第三世界の成長と安定』, 日本經濟新聞社, 1982.

(63) 기왕의 開發援助는 生産力増大의 것이 支配的이었는데 所得分配의 平均 등에서 만드지 貧困層의 生活改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認識下에 開發途上國, 특히 後發의 開發途上國의 貧困層에 直接的으로 利益을 주는 食糧, 물, 住宅, 衣服, 保健, 醫療, 教育 등의 分野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는 代替的 戰略이다.

이다.

(3) 開發必要的 및 協力必要的인 戰略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主된 對象인 後發的 開發途上國에서는 開發必要 또는 水準面에서 그리고 協力必要的인 面에서 적지 않은 變異가 共通性和 더불어 認知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開發協力は 이들에 照應되어야만 할 것은 극히 當然하다. 開發必要 또는 水準은 어느 程度 所與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상당정도로 客觀的인 것이다. 그러나 協力必要에 관한 評價와 意思決定은 그리 손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開發必要面의 基本戰略은 體系分析的 接近에 의하여 知覺의 必要(felt-needs)에 合意를 볼 것이며, 然後에 合意된 諸開發必要의 潜在的인 相對的 重要度を 多角的으로 決定하는데 勿論 이 경우에 潜在的인 協力實踐可能性의 面에서 특히 考慮를 배풀어야 한다. 그러나 協力必要的인 戰略, 다시 말하면 協力關係를 맺는 데 있어서의 意思決定은 그리 손쉬운 것이 아니다. 農村開發協力は 複數的인 當事者, 普通 一般은 二國家間的인 것이므로 基本的으로 말하여 協力受領當事者의 責務가 相對的으로 더 클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協力供與者인 先進國이 後發的 開發途上國에 대한 感情移入(empathy)을 缺如하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하겠다.⁽⁶⁴⁾

2. 研究協력과 基本的 協力接近

(1) 研究協力的인 戰略

國際農村開發協力を 企劃 執行함에 있어서는 事前에 여러가지의 作業의 妥當性에 대한 檢定이 이루어짐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實際 農村開發協力の 展開에 있어서의 實質은 技術協力 또는 技術移轉으로 되어 있는 것이 支配的이다. 이미 본 바 있는 「實物移轉」의 範疇를 맏도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디자인 移轉」 그리고 「能力移轉」이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을 持續的으로, 그리고 自力更生的으로 可能케 한다는 것은 이미 본 바가 있다. 이른 바 「農村開發技術協力」에 接續 또는 同伴되는 農村開發研究協력에 대하여 關心을 배풀어야만 할 때가 왔다고 본다. 協力供與側에서도 協力受領對象의 모든 것을 必要한대로 深層的으로 研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際農村開發協力の 主된 受領者로서의 開發途上國의 特殊個別的 또는 共通的인 諸條件에 合致된 農村開發을 보다 發展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農村開發研究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본 바도 있지만 國際的인 農村開發研究的인 努力이 기왕에 없었다는

(64) 勿論 世界에서 가장 뒤진 最低開發國中の 最低開發國이지만 방글라데쉬에 대하여 日本이 相對的으로 가장 큰 比重의 開發援助를 배풀고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쉬가 日本의 「好感」을 전폭적으로 사고 있는 데도 큰 原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 地域的인 여러개의 國際的 農業研究센터, FAO에 依한 것, 地域的인 多國間的인 센터, 그리고

것은 아니다.⁽⁶⁵⁾ 그러나 國際農村開發協력이 擴大 深化되어 감에 따라서 國際農村開發研究協力は 協力供與國인 先進國의 發議와 主導에 의하여 그의 國內에서, 그리고 農村開發協力の 對象 내지 場인 開發途上國에서 加一層 強化되어야만 하는 것이다.⁽⁶⁶⁾ 이는 單純한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의 創出 以上の 發展的인 含意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⁷⁾

(2) 基本的 協力接近方法의 戰略

이미 본 바와 같이 總體的인 國際開發協力の 틀안에서의 한 部門이 國際農村開發協力이며 個別的인 開發途上國을 보건데 總體的인 國家發展의 한 部門인 農村開發이나 農村開發=國家發展의 定式도 想定될 수 있을 程度로 農村開發의 比重이 큰 것을 많이 본다. 農村開發 그 自體의 含意에서 分명한 바 있는 것이지만 다른 開發部門과 密接히 構造化되어 있음으로 內生的 諸變數와 外生的 諸變數가 相互作用하고 있다. 그런데 農業 또는 農村의 外部的 規制變數가 農村開發에 보다 크게 影響을 주고 있는 面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 內外部的 規制變數中에는 손쉽게 變化시킬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深대한 改革에 의해서만 비로소 變化시킬 수가 있는 것도 있게 된다.

基本的으로 말하여 特定の 開發途上國에서 農村開發協力を 企劃 執行하는 過程에서 阻害的으로 나타나는 變數 내지 要因으로서 協力受領者인 開發途上國이 責任을 져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問題는 阻害的 要因을 除去 또는 解決할 能力이나 意志가 없는 경우인 것이며, 協力供與者인 先進國側의 友情的인 持續的 說得으로 解決될 수 없는 範疇의 것인 경우이다. 結局 國際農村開發協力は 롱(Long)⁽⁶⁸⁾의 이른바 改良的 接近方法(improvement approach)를 固守하여야 하는 限界를 不可避하게 지니게 되는 셈이다. 改良的 接近方法의 對概念인 變換的 接近方法(transformation approach)은 協力當事者의 內政的인 範疇의 것일 것이다.

3. 人間資源的 및 分業的 開發協力

(1) 人間資源的 戰略

二國間의 것이 있으며, 또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農科大學과 農業研究機關間의 交流 등도 있다.

(66) 다음을 參照할 것: “農業研究と國際協力—農業研究は國際協力にいかにか貢獻しうるか—”(特集), 『國際農村協力』, Vol. 5, No. 4, 1983, pp. 2-35; 『國際開發ジャーナル』(特集・經濟協力の基本「開發調査協力」), 1985, 5, No. 344.

(67) 農村振興廳의 熱帶農業擔當官室은 바로 이와 같은 國際農村開發研究協力を 위한 本格的인 機能인데, 적어도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은 國際農村開發協력을 위한 教育研究와 交流를 크게 強化시켜야 할 것이다.

(68) Norman Long,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Tavistock Publications, 1977, pp. 144-181.

國際農村開發協력을 위한 人間資源面の 戰略은 매우 多元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協力하는 當事者는 바로 比較的 專門的인 人間集團相互間이므로 人間資源的 協力的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不足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兩當事者集團間에 同質的인 것과 더불어 異質的인 것이 있게 됨은 必然的이다. 例示的인 戰略的 要請 몇가지를 指摘한다면 첫째로 協力供與國이 흔히 倂견하는 專門家 또는 變化促進者(change agents)에 관한 것이 된다. 그는 特定の 專門的인 農村開發技術을 適正하게 지녀야 하며, 同時에 協力 또는 援助하는 人間關係的 能力을 갖춰야만 되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民主的 討議指導者 能力(democratic discussion leadership)⁽⁶⁹⁾을 適正하게 지닐 必要가 있는 것이다. 異文化的 또는 文化橫斷的인 生活 및 活動適應能力을 또한 가져야만 하는 것이 必須的인데 이것이 매우 挑戰的인 것이다.⁽⁷⁰⁾ 이른바 平和奉仕團 또는 青年海外協力隊라고 하여 數多한 準專門家的 및 專門家的인 奉仕者가 開發途上國에 倂견되기 시작한지 20年이 經過되고 있는데 主로 農村開發部門에서이지만 國際的 相互理解를 實地經驗을 통하여 얻으며 또한 寄與도 하게 됨으로써 매우 좋은 計劃이라고 보게 된다.⁽⁷¹⁾

人間資源的 戰略中에서 以上과 같은 專門家確保訓練과 함께 다른 또 하나의 보기를 例示的으로 든다면 그것은 開發協力對象國의 必要한 專門人力의 訓練에 關한 것이 된다. 이들의 訓練 또는 教育의 形態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開發協力供與國에 데려다가 訓練시키는 것이 매우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이 경우 開發協力供與國의 國語를 事前的으로 教育시키는 것은 必須的이 된다.⁽⁷²⁾ 適正技術的인 訓練教育이 되어야 하는데 이 點에서 先進國

(69) F.S. Haiman, *Group Leadership and Democratic Action*, Houghton Mifflin, 1951, pp. 111-117. 그런데 레이만의 이른바 民主的 討議指導者能力은 (ㄱ) 人間關係的 指導者能力(leadership in interpersonal relations), (ㄴ) 科學方法的 指導者能力(leadership in scientific method), 그리고 (ㄷ) 協同思考的 指導者能力(leadership in cooperative thinking)의 세가지 範疇의 것으로 되어 있다.

(70) 여기에서 여러 先進國의 專門家들은 開發協력을 위한 試行錯誤的인 敎訓을 一般化하려고 努力하여 오고 있다: D. Woods Thomas, et. al., eds. *Institution Building-A Model for Applied Social Change*, Schenkman, 1972; Samuel Paul, *Managing Development Programs: The Lessons of Success*, Westview Press, 1982; Eric C. Djarnson, *The Dynamics of Euro-African Cooperation*, Martinus Nijhoff, 1976; Ingemar Torbjorn, *Living Aroad*, John Wiley & Sons, 1982; Conrad M. Arensberg and Arthur H. Niehoff, *Introducing Social Change: A Manual for Americans Overseas*, Aldine Publishing 1964; Yashpal Tandon, ed., *Technical Assistance Administration in East Africa*, the Dag Hammaskjold Foundation, 1973; 山本茂實, 『日本成年は健在だった』, 朝日新聞社, 1985; 川野重任編, 上掲書.

(71) 1960年 4월에 美國의 故 케네디大統領이 提唱한 平和部隊(Peace Corps)에 觸發되어 各先進國에서 開發途上國의 開發을 위하여 自發的 奉仕者를 倂견하여 오고 있는데 日本에서는 「青年海外協力隊」라고 부르고 있으며, 1985年 6月 1日 現在 都合 29個國에서 5,642名이 活動을 하여 美國의 60個國 4,812名에 이어 世界 第2位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

(72) 日本의 경우 國際協力事業團(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 의한 政府水準의 開發途上國 技術者招請訓練計劃을 보는데, 1年間 研修者에게는 3個月間의 日本語教育을 先修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나머지 9個月間 本格的인 技術訓練을 받고 있다.

의 경우 格別한 配慮가 必要할 것이다. 다시 나아가서 이른바 規範的 教育訓練(normative education and training), 다시 말하면 精神的 啓發(spiritual enlightenment)이 必要한데 어느 面에서 政治的 내지 文化的 敏感性과 衝擊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나 “實踐過程上的 學習”(learning by doing)에서 內面化시키도록 마련함이 必要할 것이다.⁽⁷³⁾

(2) 國際分業의인 開發協力

新世界經濟秩序(NIEO), 다시말하면 開發과 平和의 政治經濟學의 對象이자 場으로서의 南北問題를 解決하는 한 突破口는 農村開發을 통한 開發途上國,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開發이 된다는 것을 公然的 또는 含意的으로 보아 오고 있다. 그런데 共生的인 것에 까지도 이르는 相互依存的인 協力は 이른바 國際的 分業의 當爲로 擴大케 되는데 이는 특히 先進國相互間, 그리고 先進國과 先發的 開發途上國間의 一般的인 것의 加一層의 擴大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國際農村開發協力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分業을 對象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ㄱ) 先進國相互間의 分業과 (ㄴ) 先進國과 先發的 開發途上國사이의 分業으로 크게 範疇化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ㄴ), 즉 先進國과 先發的 開發途上國間의 國際的 分業을 重點的으로 살피기로 한다.

國際的인 農村開發協力の 供與에 있어서 그의 主된 擔當者인 先進國間에도 分業이 있을 수 있다. 어느 先進國은 資金面에서 重點的인 寄與를 하며, 다른 先進國은 小農이 支配的인 開發途上國에서, 그리고 또 다른 先進國은 米穀을 主食으로 하는 開發途上國에서 相對的 優越性 또는 有利性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大規模的인 下部構造的인 部門, 그리고 體制建設(institution-building) 등의 巨視的인 開發協力에 보다 適合한 先進國이 있는가 하면 微視的으로 이른바 技術協力에 越等한 能力을 보이는 先進國도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國際聯合이나 이에 準하는 國際的 機構의 경우를 考慮밖에 둔 것으로서 二國間 또는 多國間的 것에 局限된 記述이다.

그런데 國際農村開發協力에 있어서 이와 같은 先進國과 先發的 開發途上國間에 水平的 및 垂直的인 分業이 배풀어질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미 본 바 있는 바와 같이 先發的 開發途上國은 基本的으로 말하여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의 問題를 相對程度로 이미 技術移轉에 의하여 밝아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學習經驗(learning experiences)이 相對的으로 豊富하며, 이는 또한 後發的 開發途上國에게 있어서 適正水準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南北協力的인 同類意識的인 것이 相通할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農村開發技術移轉이

(73) 다음을 參照할 것. In Keun Wang, "The Human Resources Aspects of Lesotho Rural Development Institution-Building: An Experiential Memorandum," 王仁權, 『韓國農村開發研究』, 博英社, 1982, pp. 773-794.

先進國→開發途上國에서 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으로 傾向이 변화하고 있다는 論理와 크게 聯關되어 있다고 보겠다. (74)

V. 맺음말—發展的 課題

國際農村開發協力論의 序說을 끝맺음에 있어서 특히 發展的 課題를 展開하는 試圖는 그 自體가 그리 손쉽거나 簡單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相當程度로 이미 發展的 課題가 一般的으로 含意 提示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國際農村開發協력을 위한 發展的 課題만을 한 두가지 抽出하기로 한다. 國際農村開發協力에 發議的인 參與를 供與의 地位에서 베풀고 있는 우리로서 무엇보다도 이에 關한 聯關的인 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을 體系的으로 베풀어야 마땅하다. 즉 國際農村開發協力에 關한 理論, 知識經驗 등을 學習 移轉함으로써 後發性利益을 最大限으로 얻어 自體的인 정비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技術移轉의 源泉은 아마도 日本을 꼭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75)

本格的인 國家發展이 相對的으로 日淺함으로 크나큰 發展을 보고는 있으나 여러 면에서 基盤이 아직 確固하지 못한 點을 發見하는 것은 크게 놀랄 마는 아닐 것이지만, 國際化 時代에 마구 뛰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서 國際農村開發協力에 關한 教育과 研究가 活潑히 大學에서 베풀어져야만 할 것인데 이는 앞서의 “技術移轉”과 매우 密接히 聯關되어 있는 것이다.

(74) In Keun Wang, “International Agricultural...” 前揭論文. 기왕에 臺灣의 “Chinese Agricultural Missions”는 全世界的으로 名聲을 얻었으나 國際政治的으로 死滅되다시피한 오늘이며, 先發的 開發途上國이라고 하더라도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必要에 相對的으로 가장 適合하고 또한 分業的 役割을 다할 수 있는 경우는 韓國을 포함한 極少數에 不遇할 것이다.

(75) 國際農村開發協力에서는 日本은 後發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經濟大國으로 되고 따라서 國際的 指導國家가 된 오늘날 國際農村開發協력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聯關的인 國際的機構와의 協力は 두말할 나위도 없고 二國間協力の 경우에도 公式政府機關인 國際協力事業團(JICA)에 의한 農業部門協力, 그리고 社團法人인 國際農林業協力協會(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ICAF)의 活動이 두드러지며, 또한 東京農業大學을 中心으로 하여 國內 30個大學의 專門教授에 의한 「據點大學方式 農業研究交流」와 熱帶農業研究所와 アジア經濟研究所 등의 役割도 특히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다.